

## 미국은 어떻게 제국이 되었는가?

권용립, 『미국 외교의 역사』(삼인, 2010).

신철희(서울대)

미국은 오늘날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의 삶과 운명에 여전히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 아니 상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자신이 보고 싶은 면만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매우 일방적이고 이념 편향적이거나, 잠깐 동안의 미국 체류 경험이나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접하는 미국의 모습이 전부인 양 믿는 피상적인 인식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우리의 미국에 대한 시각의 불완전성의 책임은 신속한 보도의 불가피성이라는 언론의 속성을 이유로 내세우는 무책임한 언론에게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정치학계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미국 외교와 정치에 대한 국내의 대다수의 논문과 책들은 미국 주류 학자들과 언론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거의 있는 그대로 전달함으로써 미국의 개론 교과서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었다. 대다수의 미국 전공 정치학자들은 미국에서 공부했지만 정작 미국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은 답답함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

국제정치나 미국정치에 대해서는 이해가 그다지 깊지 못하지만, 그래도 미국에서 잠시나마 정치철학을 공부해봤다는 점을 면피 삼아서 감히 말하자면, 7년 전에 우연히 접한 권용립 교수의 『미국의 정치문명』(2003[1991])은 예외였다. 국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정치학자가 미국의 우수한 대학에서 공부한 학자들보다 미국 정치와 그 정신적 기원에 대해서 오히려 더 정확하고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놀라운 발견이었다.<sup>1)</sup> 필자의 견문이 짧은 탓일 수도 있겠지만, 미국의 정치철학자들 중에서도 미국의 ‘정치문명’에 대해서 이 정도로 심도 있게 정리해내는 경우를 별로 보지 못했던 것 같다. 수년 전에 필자에게 놀라움을 안겨주었던 권용립 교수가 최근에, 『미국의 정치문명』에서 전개했던 미국 정치의 정신적 기원에 대한 이론적 기반 위에서, 혁명과 건국 시기부터 현재의 오바마 정부에 이르는 200여 년간의 미국 외교의 역사를 다룬 700여 페이지나 되는 또 하나의 역작, 『미국 외교의 역사』<sup>2)</sup>를 펴냈다. 권교수가 직접 언급하고 있듯이, 『미국 외교의 역사』는 『미국의 정치문명』의 ‘후속작’인 셈이다.

책의 전체 구성은 이론적 논의를 하고 있는 1, 2장을 제외하면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단순한 “연대기 형식의 미국 외교사”처럼 보이지만, 저자의 저술 의도와 실제 내용은 그것보다 훨씬 복잡하다. 권교수는 우선 ‘외교사’와 ‘대외정책사’를 구분하는데, 전자는 “두 나라 또는 두 나라 이상의 국제관계”를 보는 것인 반면에, 후자는 “특정 국가에 초점을 맞추어 그 나라의 외교와 정치를 하나로 묶어” 본다는 차이점이 있다(29). 저자는 이 책이 미국 외교를 정치와 외교의 상관관계 속에서 파악한다는 점에서 ‘대외정책사’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저자는 또한 미국의 외교를

1) 이후 이 책을 읽어 본 다수의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필자와 유사한 반응을 발견할 수 있었다.

2) 권용립, 『미국 외교의 역사』(삼인, 2010).

‘대외정책사’의 관점에서 봐야 하는 이유로, “다른 나라에 비해 미국은 국내 정치와 외교정책의 상관성”이 매우 높고, “외교문제에서 미국 대통령이 연방의회를 압도”하는 “제도적 요인”을 고려할 여지가 생기며, “미국 외교의 틀과 지속적인 패턴” 속에서 “미국 외교를 비교적 사실에 가깝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31-2). 다시 말하면, 이 책은 역사학과 (국제)정치학을 접목함으로써 미국 외교의 바탕에 깔린 전통과 미국 외교의 표면에 나타나는 변화를 동시에 포착하려는 시도인 것이다.

그동안의 미국의 외교정책에 대한 국내 정치학계의 연구는 단편적인 현상 분석에만 머물 뿐, 그 이면에 숨어있는 일관된 흐름을 잡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권교수의 이 책은 “미국의 외교는 변하면서도 변하지 않았다”(28)는 기본 전제 위에서 그 ‘변하지 않는 것’을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 즉, 미국 외교의 세부 기조와 정책은 때에 따라 변해왔지만, 그 밑바닥에는 변하지 않는 오래된 미국인의 정신적 관습, 저자의 표현대로, “미국의 정치문명”(political civilization of the United States)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정치문명”에 대한 내용은 이미 『미국의 정치문명』에서 상세하게 서술되고 있지만, 여기에서 간단하게 소개하면, 권교수가 ‘보수적 아메리카니즘’이라고 부르는 미국의 보수적 정치 이념은 미국의 ‘혁명의 시대’에 신대륙에 유입된 고대 공화주의와 근대 자유주의가 시민 종교의 역할을 했던 켈빈주의(퓨리터니즘)와 결합해서 빚어낸 결과라는 것이다.<sup>3)</sup>

『미국 외교의 역사』에서 권교수는 자유주의, 공화주의, 켈빈주의가 융합해서 나타난 미국 외교의 정신적 전통으로 크게 세 가지, 즉 팽창의 전통, 십자군주의(또는 메시아니즘), 그리고 자유교역주의를 지적하고 있다. 미국

3) 권용립, 『미국의 정치문명』(삼인, 2003), 9, 73.

외교의 정신적 전통을 위와 같이 볼 경우 미국의 고립주의(Isolationism)와 개입주의(Interventionism) 외교도 칼빈주의의 선민의식에 기초한 미국의 위대성에 대한 믿음의 다른 표출방식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미국의 팽창주의적 성향이 땅과 농업을 덕성의 원천으로 본 공화주의와 상업을 자유의 원천으로 본 자유주의의 대립 결과, 갈등의 해소를 위한 타협책이었다는 설명도 흥미롭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미국 외교사를 시기별로 구분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일관되게 원래 공화국으로 건설된 미국이 세계제국의 길을 걷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이 19세기 중반에 영토제국, 19세기 후반에 통상제국, 20세기 초에 이념의 제국의 모습을 갖추어나가고, 결국 2차 세계대전 후 군사적 패권까지 획득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저자가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듯이, 이 책이 단순히 미국 외교사가 아니라 대외정책사이기 때문에 미국의 외교정책이 국내 정치, 특히 정당정치와의 관계 속에서 변화하는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비전공자의 입장에서 이 책(『미국의 정치문명』도 마찬가지지만)에서 받은 깊은 인상 중의 하나는 권용립 교수가 문장가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700여 페이지의 두꺼운 책에서 비문이나 번역투의 문장을 거의 발견할 수 없고 또한 이야기책처럼 술술 읽힌다는 점은 학자로서의 성실함과 능력을 증명하고 있다. 그렇지만 글이 쉽게 읽힌다고 해서 그 내용이 가볍거나 수준이 낮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필자는 글을 술술 읽으면서도 끊임 없이 밑줄을 치고 또 그 내용을 반추하게 되는 신기한 경험을 했다. 확신했던, 이 책은 미국 외교사뿐 아니라 미국 정치사 입문서로서도 훌륭한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 대한 아쉬운 점 몇 가지를 지적한다면, 물론 이미 확고한 이론적 기초를 갖추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미국 정치문명』에

서 처음 제시했던 ‘미국 정치문명’의 내용이 별다른 진전이 없이 이 책에서 거의 그대로 재생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 공화주의, 켈빈주의 셋이 모이면 미국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이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만들 위험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저자는 기독교가 곧 미국의 시민종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57), ‘시민종교’가 정치와 종교의 관계에 있어서, 종교보다는 정치에 방점이 찍히는, 종교의 정치적 활용에 주된 관심이 있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정교분리의 원칙을 지지하고 있는 종교개혁 이후의 기독교(켈빈주의)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